



創刊辭

理事長 李 嘉 商

人¹로 因한 火災를豫防하고 防止하기 위한 防災機關으로서 韓國人災保險協會가 設立되었고, 们立과 同時に 負荷된 業務를 하나 하나 實質하게 推進해 나가고 있다

先進國의 防災機關은 오랜 歷史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豐富한 經驗과 高度의 技術로써 防災機關으로서의 機能을十分發揮하고 있지만 設立日成한 우리의 지금 저지하는 그리하질 못하다 그러나始作은半이라는 俗談을 빌릴 것도 없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發展이 있고 또 結實이 오고야 만다는 굳은 信念과 開拓者精神을 가지고 前進한다면 우리가 目標하는 저 언덕에 반드시 到達할 수 있다고는 한다 10年前 3천만弗의 輸出水準이 지금 20억弗대에 到達했고 이것이 다시 80年代에는 100억Fr²이 하듯이 아주 뒤늦게 發見한 우리의 防災機構도 先進國의 小學을 따라 가는데 拍車를 加해야 는 強한 意願이 무엇보다도 妥望 되고 있다

우리는 全然無經驗狀態에서 特殊建物에 對한 安全點檢을 實施하고 있다 安全點檢의 基準이 그대로 처음으로 만들었고 點檢自體도 저음일 뿐더러 그 結果分析³도 저음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點檢要領 點檢方法 結果分析 等 業務는 앞으로 經驗과 實際資料를 基礎로 많은 方面과 研究를 거쳐 보다 科學的이고 보다 效率的 方向으로 다듬어져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緊密로써 우리의 防災業務能力은增進되고 이 機關의 內質化도 可期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스리의 技術向上問題에 뭇지 않거 重要한 部面은 本協會와 大眾과의 連關係係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풀통한 業務能力은 가지고 大眾에게 奉仕를 하려 해도 建物所有者가 本機關의 能을 온바로 認識하지 못하고 우리의 仕事은 甚少하고 協力を 하지 않는다면 本机关의 實效는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의문에 安全點檢을 實施하고 또 甚少의 點檢要領을 勸誘하는 것은 누구든 甚少의 仁人志士에 대한 啓蒙事業을 果極推進해야 한다. 비시 말하면 特殊建物의 所有者로 이어금⁴ 한 貨物理巴考方式을 갖도록 힘써야 하며 이는 곧 소害⁵의 인觀點에서 本机关의 任道論까지造成시킴으로써 建物所有者이 甚少의 소행에 關하여 우리와 一齊⁶은 甚少의 力⁷ 야 할 것이다

創立日成한 本机关은 이날의 그늘⁸을 가지고 出帆했다 따라서 이 機門은 무⁹나 甚¹⁰시키는 事¹¹ 있어서는 安全¹² 甚¹³은 甚¹⁴한公開的 討議가 必要하고, 本机关의 陳述發表와 一齊에 對한 各種¹⁵ 甚¹⁶한協會業務推進狀況 等의 公開와 資料提供이 所望되고 있다

기성 우리는 甚¹⁷은 甚¹⁸일들을 推進하는 하나의 媒介體로서 「火災安全」 甚¹⁹은 甚²⁰ 아래 이 機門의 创刊은 보시 되 것이다

안으로 이 「火災安全」 甚²¹은 甚²²하는 모든 機門 學者, 賦者 및 甚²³은 甚²⁴ 甚²⁵에 關한 研究와 實務의 「산통」 的 役割을 提供할 것은 다짐하는 同時²⁶ 也으로 本報의 評論이 거듭해 나감에 따라 本協會도 나날이 爬搔져서 이 날 위의 爬搔없는 甚上²⁷ 땅을 跳躍하는²⁸ 숨은 밀거름이 되기를 希求하여 마지 않는다